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12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주요 조사결과	4
1. 현안 조사	7
2. 국정 지표	13
3. 조사 개요	22



현안조사 : 성인 음란물 접촉 실태 및 인식

-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 입니까? 당신은 전기를 절약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응답자가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답변 결과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주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보십니까? 성인 음란물을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입니까? 성인음란물은 국가에서 통제 해야 합니까? 여론 속의 여론은 웹조사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솔직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꺼라 생각하였습니다.
- 성인남녀 100명중 39명은 지난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남성(63%)이 여성(16%) 보다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부 솔직하지 못한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40%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음란물을 접촉한 응답자들은 개인PC보다는 스마트폰(67%)을 주로 이용하였고, 웹 사이트는 성인 전용 사이트(31%)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접촉하는 웹사이트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랐습니다. 성인 전용 사이트는 남성과 20대에서 높았고, 모바일 메신저는 여성과 60대 이상에서 높았습니다.
- 성인 음란물을 내가 직접 검색을 통해 찾아본 경우도 있었지만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인 음란물을 접촉한 행동 5가지(검색, 지인 전달, 게시물, 구매, 스팸메세지)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성인 음란물을 직접 찾아본 경험이 6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험이 45%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받아 본 경험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성인 음란물 접촉, 소장(소지), 전달, 게시, 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이 행위들이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물어본 결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반면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 직접 생산하여 유통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 불법 음란물을 제외한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 문제인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68%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성인 음란물의 국가 규제에 대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59%가 국가가 규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남성(72%)은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53%)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47%는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정책 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전월(55%) 대비 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10월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3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리더십 평가에서도 6가지 항목(원칙과 소신, 소통, 민생 안정, 위기상황 대처, 통합 노력, 공직 인사) 모두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역시 10월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10개 정책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우선 과제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 결과, ‘일자리 및 고용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긍정평가는 낮았습니다. 반대로 ‘복지 및 분배 정책’, ‘외교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대북 정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에 평가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향후 ‘일자리 및 고용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 경제인식지수는 -48로 지난 달(-44)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는 무직/퇴직/기타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5월 이후 10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11로 지난 달(+15)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10월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성인 음란물

01

현안조사

1) 성인 음란물 접촉 실태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
39%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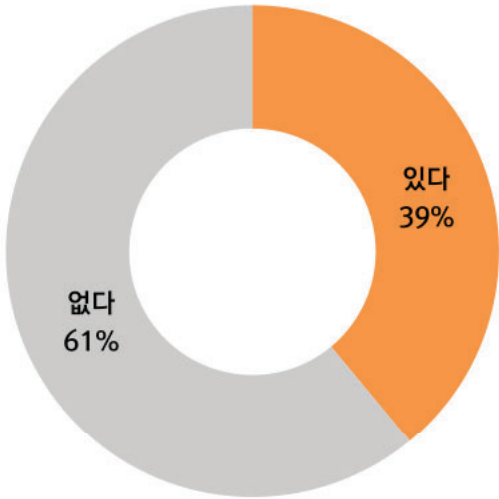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39%, 없다는 61%이다. 남성(63%)과 여성(16%)의 경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가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실제 접촉 경험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성인 10명 중 최소 4명 이상은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경험 비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

최근 1년간 선생님께서는 성인 음란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n=1,000명,%)



(n=1,000명,%)

Base=전체	사례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00)	39	61	100
성별				
남자	(497)	63	37	100
여자	(503)	16	84	100
연령				
19-29세	(175)	58	42	100
30-39세	(173)	46	54	100
40-49세	(203)	40	60	100
50-59세	(201)	31	69	100
60세 이상	(248)	28	72	100

01

현안조사

2) 성인 음란물 접촉 경로

성인 음란물 주 이용 기기는 스마트폰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인 음란물을 접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 6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컴퓨터(29%), TV(2%)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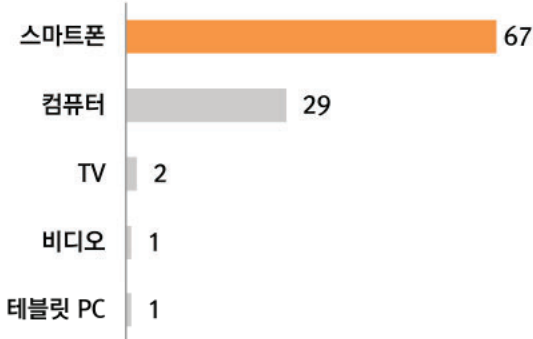
주 이용 인터넷 공간은 성인 전용 사이트

성인 음란물을 접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은 성인 전용 사이트가 3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웹하드·P2P 사이트(20%), 모바일 메신저(17%)등의 순이다.

한가지 특이점은 성별과 연령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성인 전용 사이트는 남성(34%)과 20대(47%)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모바일 메신저는 여성(21%), 60대 이상(30%)에서 응답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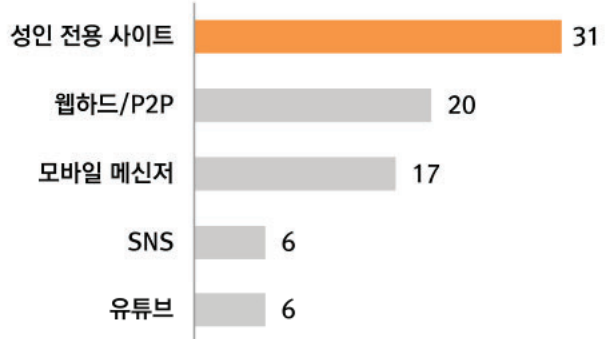
Q 최근 1년간 선생님께서 음란물을 접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기기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n=393명, %)



Q 최근 1년간 선생님께서 음란물을 접하실 때 주로 이용하시는 인터넷 공간은 어디인가요?

(n=393명, %)



(n=393명, %)

Base=성인 음란물 경험자	사례수(명)	성인 전용 사이트	웹하드, P2P 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SNS	유튜브	인터넷 방송
전체	(393)	31	20	17	6	6	4
성별							
남자	(312)	34	21	15	6	5	5
여자	(81)	18	17	21	6	12	0
연령							
19-29세	(102)	47	18	5	13	3	1
30-39세	(80)	25	36	9	5	4	6
40-49세	(81)	24	24	16	5	7	1
50-59세	(62)	30	14	30	3	9	5
60세 이상	(69)	23	7	30	3	10	7

01

현안조사

3) 성인 음란물 접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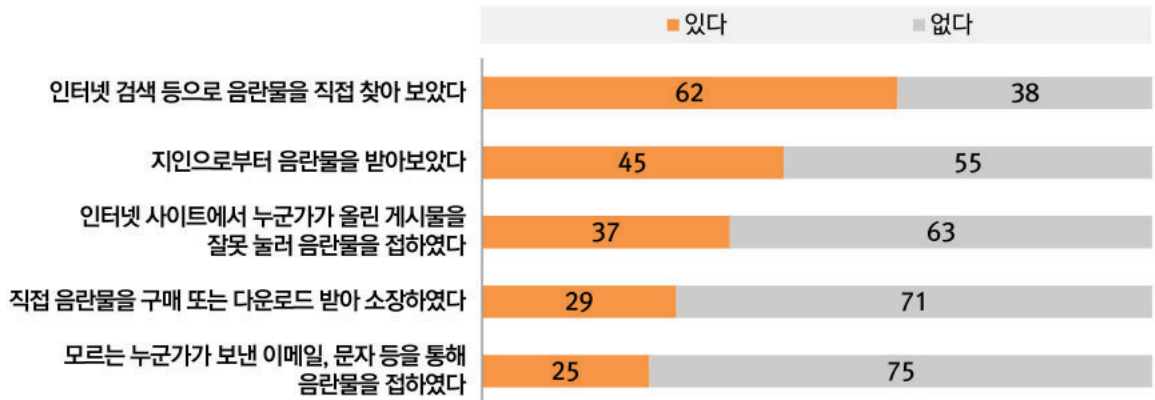
접촉 유형은 직접 찾아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인으로부터 음란물을 받아본 경험도 45%로 높아

성인 음란물을 접촉한 행동 유형 5가지에 대해 각각 물어본 결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직접 찾아본 경험을 한 비율이 62%로 가장 높았다.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우는 45%가 넘는 것을 보아 수동적으로 성인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 찾아보기(62%) > 지인으로부터 전달(45%) > 웹사이트 게시물(37%) > 직접 구매 또는 다운로드(29%) > 스팸 메시지(25%)

Q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이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n=393명, %)



지인 통해 받아본 경험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특히 높아

각 접촉 유형별 성별,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지인으로부터 음란물을 받아 본 경험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0대(53%), 50대(66%), 60대 이상(62%)

(n=393명, %)

Base=성인 음란물 경험자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393)	45	55	100
성별				
남자	(312)	45	55	100
여자	(81)	44	56	100
연령				
19-29세	(102)	21	79	100
30-39세	(80)	34	66	100
40-49세	(81)	53	47	100
50-59세	(62)	66	34	100
60세 이상	(69)	62	38	100

01

현안조사

4) 성인 음란물 관련 행위별 처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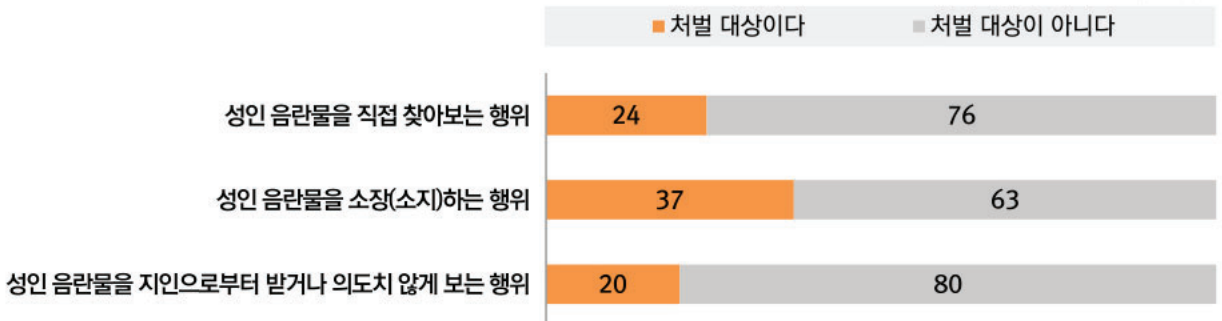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행위는
처벌 대상 아님

성인 음란물과 관련된 행위 별로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소장하는 행위, 지인으로부터 의도치 않게 받아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았다.

- 직접 찾아보는 행위 : 24% / 소장(소지)하는 행위 : 37% / 지인으로 받거나 의도치 않게 받아보는 행위 : 20%

Q 선생님께서는 다음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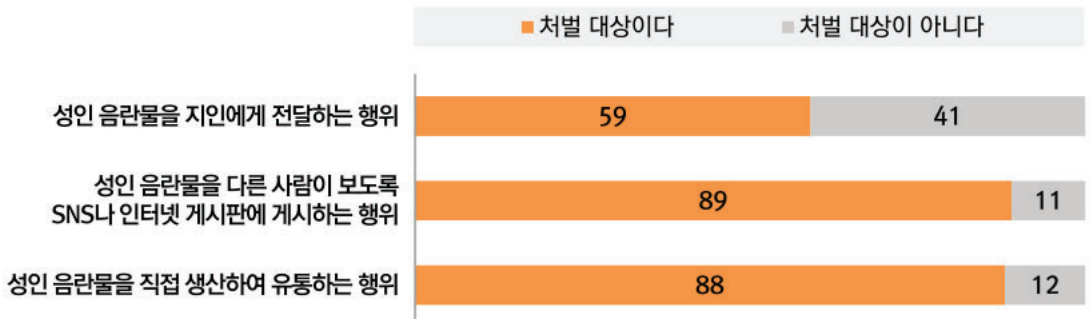
타인에게 전달, 게시,
생산 및 유통은 처벌해야

성인 음란물을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 직접 생산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 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59% / 다른 사람이 보도록 SNS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89% / 직접 생산하여 유통하는 행위 : 88%

Q 선생님께서는 다음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01

현안조사

5) 성인 음란물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국가 규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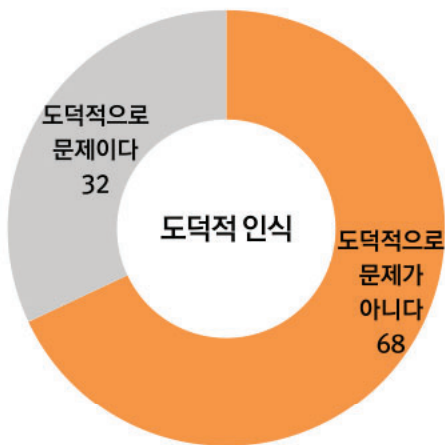
**성인 음란물에 대한
국가 규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불법 음란물을 제외한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음란물을 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의견보다 약 30%p 이상 높다.

성인 음란물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는 59%, 찬성은 41%로 나타났다. 남성(72%), 20대(70%)에서는 반대가 높고, 여성(53%), 60세 이상(51%)에서는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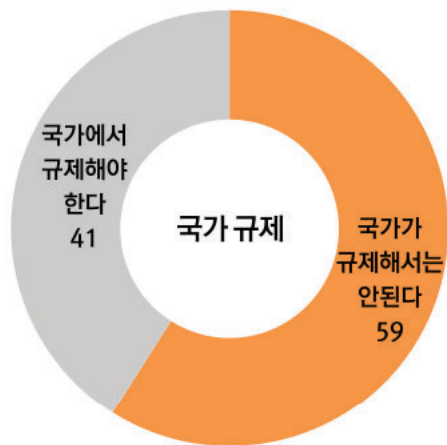
Q 선생님께서는 한 개인이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Q 성인 음란물을 보는 것(소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Base=전체	사례수(명)	도덕적 인식		국가 규제 인식	
		아동·청소년 포르노, 몰카와 같은 불법 음란물을 제외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법 음란물이든 상업 음란물이든 음란물을 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이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몰카와 같은 불법 음란물 외에 성인 음란물에 대해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어떤 음란물이든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
전체	(1,000)	68	32	59	41
성별					
남자	(497)	78	22	72	28
여자	(503)	57	43	47	53
연령					
19~29세	(175)	79	21	70	30
30~39세	(173)	75	25	63	37
40~49세	(203)	65	35	59	41
50~59세	(201)	64	36	60	40
60세 이상	(248)	59	41	49	51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5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0%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46%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5%포인트(55% → 50%) 하락하였다. 10월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대비
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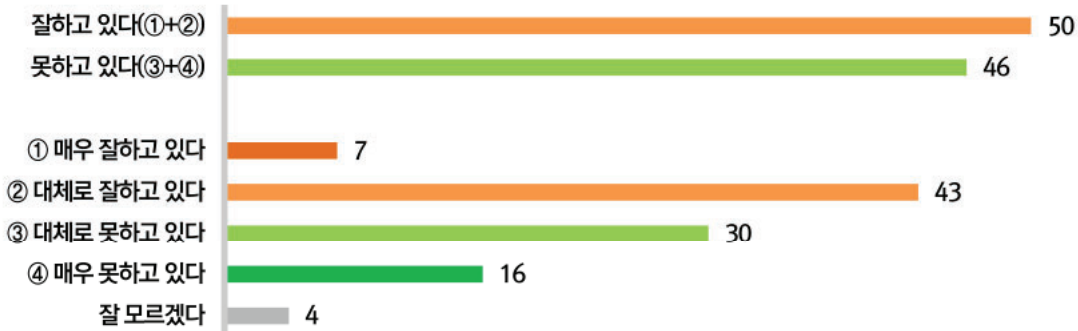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51%, 30대 56%, 40대 62%, 50대 47%, 60세 이상 38%이며, 30대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51%, 인천/경기 54%, 대전/세종/충청 47%, 광주/전라 66%, 대구/경북 42%, 부산/울산/경남 40%이며, 지난달 대비 광주/전라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3%, 중도 48%, 보수 27%로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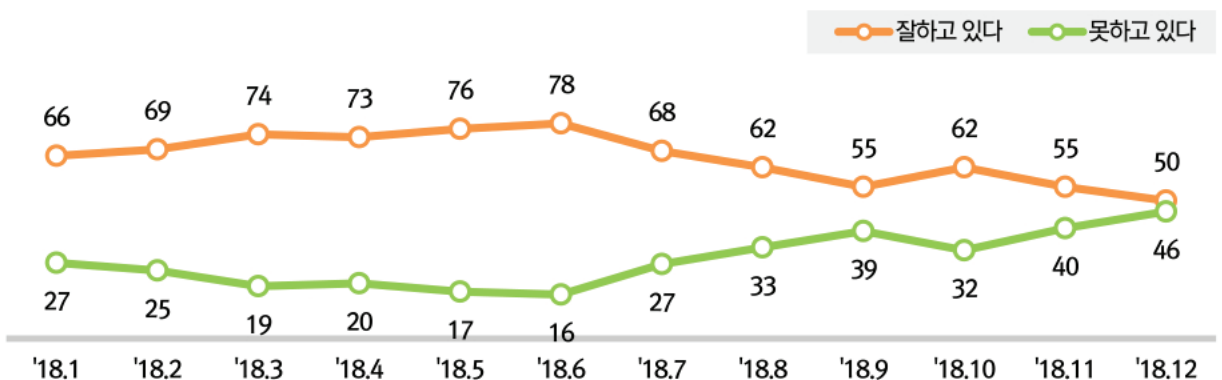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55%, 못하고 있다 40%

(N=1,000, %)



지난달 대비 5%포인트 하락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3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62	55	50	-5
19-29세	67	74	73	78	81	80	70	65	57	62	49	51	+2
30-39세	77	81	81	87	85	85	72	68	63	72	69	56	-13
40-49세	78	77	88	82	83	87	76	71	65	72	69	62	-7
50-59세	66	71	76	70	80	72	68	64	58	60	52	47	-5
60세 이상	48	47	58	56	59	70	55	48	39	50	38	38	0

지난달 대비 호남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62	55	50	-5
서울	60	68	74	69	76	78	69	57	57	68	56	51	-5
인천/경기	68	71	76	77	79	79	69	67	53	63	52	54	+2
대전/세종/충청	72	66	73	73	74	74	67	56	52	55	54	47	-7
광주/전라	84	85	90	87	91	91	86	84	83	78	83	66	-17
대구/경북	60	62	59	60	62	69	50	50	47	45	47	42	-5
부산/울산/경남	62	59	71	71	76	77	62	57	50	62	42	40	-2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62	55	50	-5
진보	88	88	93	93	94	95	93	87	81	81	77	73	-4
중도	70	73	74	73	81	76	69	55	53	64	53	48	-5
보수	41	47	51	48	50	59	36	41	31	37	30	27	-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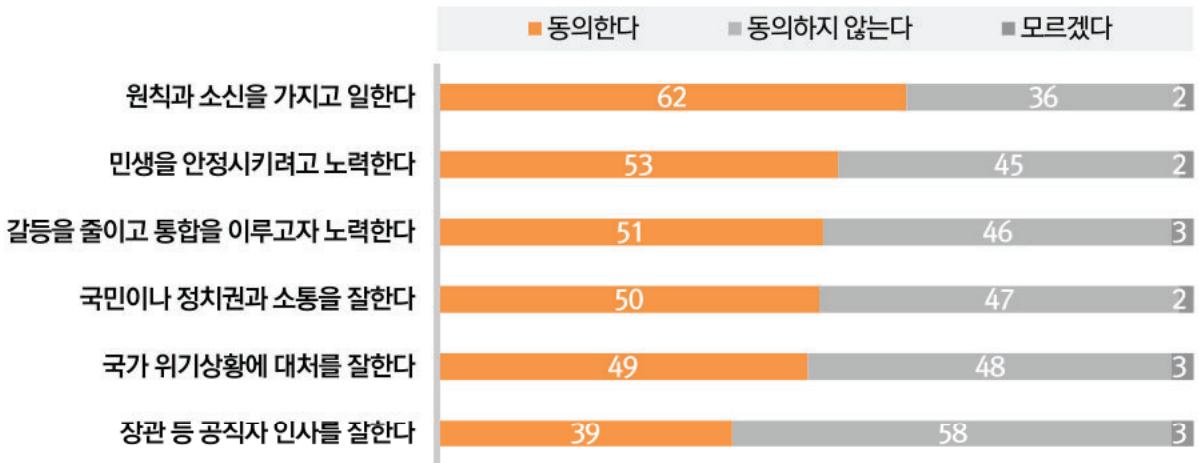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리더십 관련 모든 차원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생 안정(53%), 통합 노력(51%), 소통(50%), 위기상황대처(49%), 공직인사(39%)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하였다. 10월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 하락

(N=1,000, 동의한다%, %p)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72	72	78	74	78	81	75	70	64	69	65	62	-3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73	69	71	73	71	69	66	63	58	60	54	53	-1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62	62	66	68	67	68	64	61	55	59	54	51	-3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69	68	72	71	72	74	67	64	58	60	54	50	-4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59	62	70	71	73	73	65	60	58	62	55	49	-6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2	51	57	51	55	59	52	48	42	45	40	39	-1

02

국정지표
3) 정책 평가

일자리 및 고용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 및 부동산 정책

집중적인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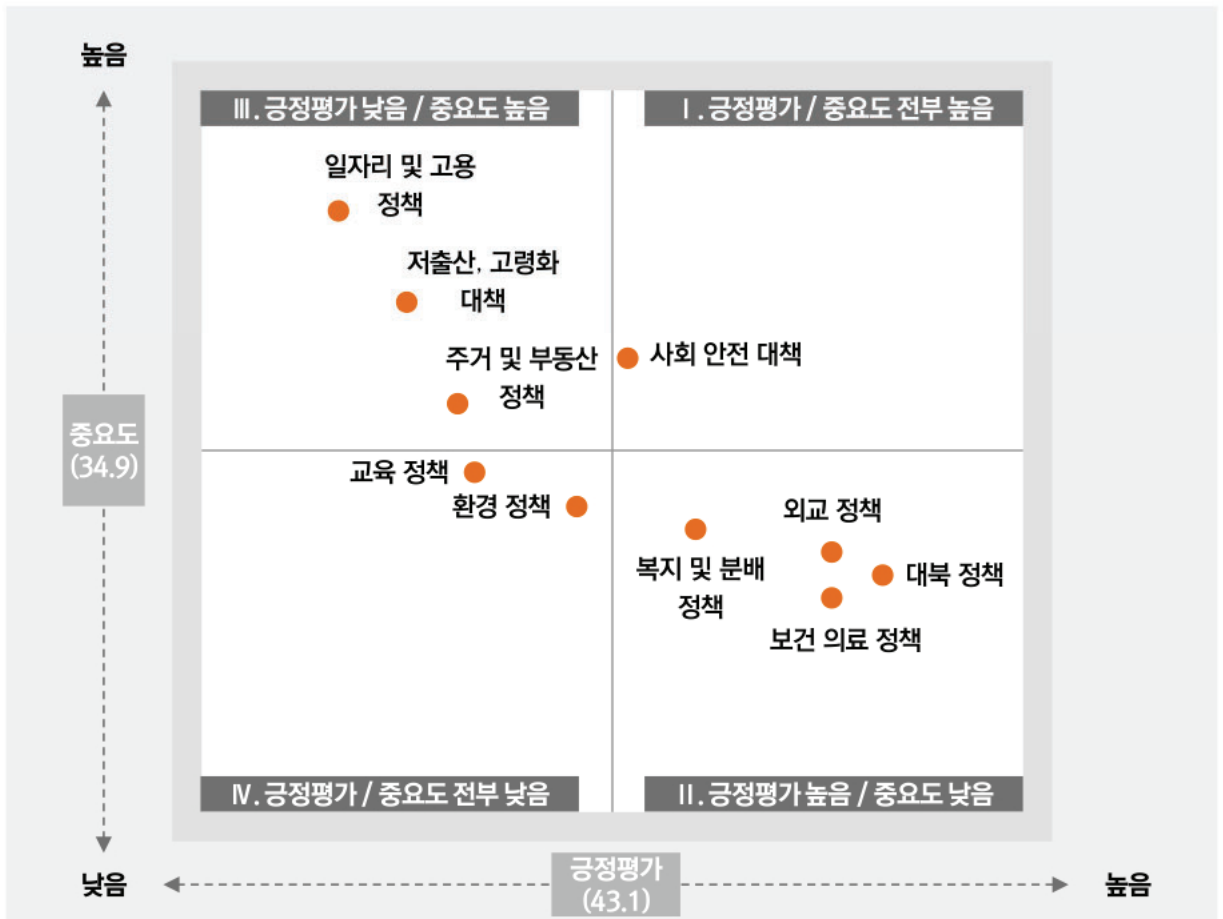
주요 10개 정책별로 실행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요도(최우선 과제인지 여부)를 물어본 후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긍정평가는 낮은 편이었다. 반대로 ‘복지 및 분배 정책’, ‘외교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대북 정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에 평가는 높은 편이었다.

‘교육 정책’과 ‘환경 정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과 긍정평가 비율이 모두 낮았고, ‘사회 안전 대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과 긍정평가 비율이 모두 높은 편이었다.

(N=1,000, X축 잘하고 있다%, Y축 최우선 과제이다%)

10개 주요 정책별 포트폴리오 분석



02

국정지표
4) 국가 경제 인식국가경제인식지수
-48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48로 지난달(-44)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다. 5월 이후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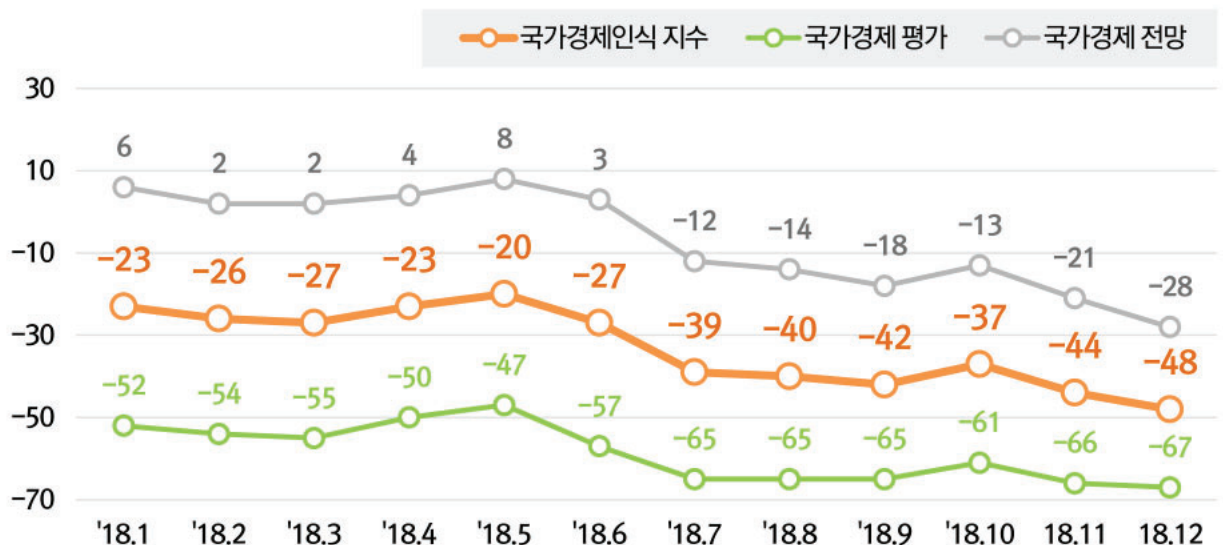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5%	22%	72%	1%	100%	-67(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20%	31%	48%	2%	100%	-28(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48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3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37	-44	-48	-4
19-29세	-25	-16	-20	-16	-20	-27	-26	-39	-35	-29	-42	-38	+4
30-39세	-12	-20	-17	-8	-9	-19	-33	-30	-34	-27	-30	-46	-16
40-49세	-12	-13	-16	-23	-7	-11	-34	-32	-34	-22	-33	-40	-7
50-59세	-26	-29	-30	-30	-20	-36	-44	-43	-40	-47	-48	-50	-2
60세 이상	-36	-46	-45	-34	-40	-40	-52	-53	-59	-54	-63	-60	+3

지난달 대비 대중/세종/충청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37	-44	-48	-4
서울	-25	-25	-28	-28	-17	-35	-35	-48	-46	-33	-44	-46	-2
인천/경기	-25	-27	-22	-20	-20	-26	-39	-34	-41	-37	-49	-45	+4
대전/세종/충청	-22	-31	-23	-22	-30	-18	-35	-41	-35	-38	-42	-63	-21
광주/전라	-4	-7	2	-1	+3	+3	-15	-20	-13	-16	-23	-26	-3
대구/경북	-32	-31	-49	-38	-33	-38	-50	-58	-55	-53	-51	-57	-6
부산/울산/경남	-22	-31	-44	-27	-23	-39	-54	-46	-49	-43	-50	-53	-3

지난달 대비 무직/퇴직/기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37	-44	-48	-4
자영업	-31	-35	-37	-41	-37	-32	-51	-49	-62	-47	-52	-60	-8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21	-13	-38	-32	-38	-35	-19	-39	-40	-1
생산/기능/노무	-13	-22	-12	-22	-13	-16	-39	-31	-33	-34	-38	-40	-2
사무/관리/전문	-19	-22	-15	-6	-13	-21	-38	-39	-33	-34	-47	-40	+7
주부	-32	-35	-31	-29	-24	-35	-45	-45	-49	-39	-53	-59	-6
학생	-10	-11	-30	-26	-21	-31	-34	-40	-50	-25	-36	-28	+8
무직/퇴직/기타	-19	-27	-35	-26	-20	-22	-31	-39	-41	-44	-36	-53	-17

02

국정지표
5)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11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11로 지난달(+15)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다. 6월 이후 10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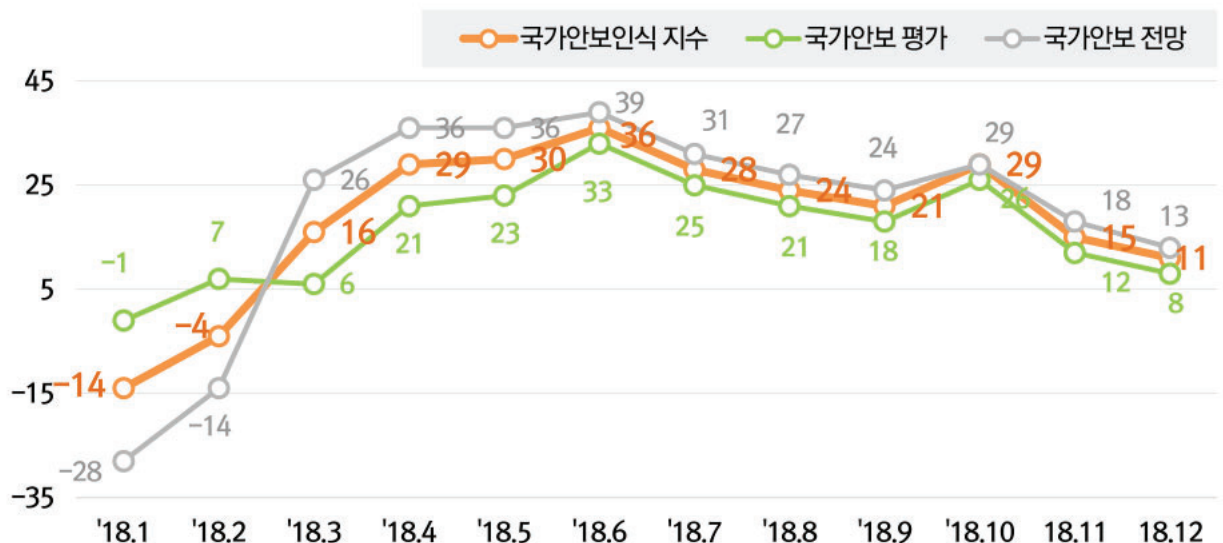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36%	34%	28%	2%	100%	+8(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38%	34%	25%	3%	100%	+13(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11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3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29	+15	+11	-4
19~29세	-8	+10	+18	+35	+30	+28	+36	+28	+18	+24	+14	+12	-2
30~39세	+2	+9	+25	+35	+38	+33	+39	+28	+24	+37	+28	+10	-18
40~49세	+3	+10	+36	+36	+43	+58	+46	+41	+39	+50	+36	+24	-12
50~59세	-18	-1	+18	+29	+34	+40	+26	+27	+30	+31	+21	+20	-1
60세 이상	-42	-37	-9	+15	+10	+23	+1	+2	-1	+8	-12	-6	+6

지난달 대비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29	+15	+11	-4
서울	-24	-10	+15	+29	+31	+34	+33	+21	+22	+33	+27	+15	-12
인천/경기	-14	-3	+23	+35	+31	+38	+28	+29	+22	+34	+6	+16	+10
대전/세종/충청	-11	-13	+20	+24	+25	+35	+36	+18	+24	+18	+7	-6	-13
광주/전라	+8	+24	+42	+49	+60	+54	+52	+47	+51	+57	+53	+36	-17
대구/경북	-29	-5	-15	+8	+10	+20	+5	+12	+5	+9	+15	-2	-17
부산/울산/경남	-11	-9	+4	+23	+30	+33	+14	+19	+12	+19	+1	+3	+2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29	+15	+11	-4
진보	+16	+28	+51	+63	+63	+71	+70	+62	+62	+65	+56	+53	-3
중도	-10	-6	+11	+22	+32	+29	+27	+15	+15	+27	+8	+1	-7
보수	-52	-36	-20	-7	-11	-1	-20	-10	-18	-11	-23	-23	0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론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8년 8월 기준 약 43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8,246명, 조사참여 1,44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1%, 참여대비 69.3%, 유효참여자 대비 84.8%)
조사일시	• 2018년 12월 14일~17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